

투데이칼럼

AI시대에서의 변명과 생존

분 당에있는 게임산업체 NC소프트, 1997년 창업. 자산 4조에 연매출 1조 6천여억원, 종업원 3천 8백여명이다. 세계 게임산업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4위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 제조업, 유통과 서비스업, 패션업 등을 훌쩍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에 찬란한 빛과 어둠을 함께 물고온 것이 있는데 이는 'AI'이다. 실예가 AI 자동차와 '챗 지퍼티(Chat GPT)'이다.

챗지퍼티에 명령어와 구체적자료만 넣으면 요구하는 상당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 구글서버를 훌쩍 뛰어넘어 5가 나왔다.이프로가 우리에게 주는 큰 효과는 지식정보 못지않게 어떤 일의 오류여부를 판단하게 해준다.

컴퓨터의 발달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노동력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40여년 전부터였다.

내가 기동대 중대장 하던 90년대 후반, 익산 탄도기계(자동차소바 생산공장) 노동자 5백여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의 해산과 진압에 기동대 4개 중대가 동원되었는데 과열이유가

생산공정에 로봇을 들여옴으로서 생산직원을 4년내 1/4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런 로봇에 이어 더 심각해진 노동시장은 이제 AI시대이다. 제조업, 택시, 유통, 심지어 농업분야도 대규모 시설원예, 축산, 양어 등에 AI를 도입, 종업원을 1/5~1/10로 단축한다.

미국의 밀, 포도, 딸기, 체리와 토마토, 목화, 옥수수, 감자, 기타 거의 대부분 작물을 대규모 기계에 의해 재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하여 종업원이 현저히 적다. AI가 기계에 적용되면 더 놀랍게 된다.

AI 분야의 발달이 가져올 영향이 더 큰 분야는 서두 NC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분야이다. 이제 그 개발자는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작동, 부수기재를 이용

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제품, 게임, 기타 창조물을 만들 것인지를 상상, AI에 구체적 명령을 발로하면 된다. 즉 상상력이 최종 개발자이자 엔지니어가 된다. 요즘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가 80%나 하고되고 있다.

대신 AI를 이용한 1인 사업자, 전문변호사, 광고제작자, 작곡가와 작사가, 종합 연주가, 유통업자, AI와 3D를 이용한 설비 제작자, 도구제작자, 채권추심자, 탐정 등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더 심각한 것은 AI가 서버 AI를 개발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시대에서 이전 우리의 자존도 일부만 재외하고는 머리아픈 고난이도의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가르치기보다 AI 운용, 응용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미 미국 초중고 등 학계에서는 전자계산기 등 응용기기의 사용

을 허용 하고 있다. 난이도 높고 활용도 적은 주입식 교육보다 무한한 개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최선이다.

우리의 산업계는 지금 AI의 추진을 통한 첨단산업계의 흐름에 맞추거나 장악에 힘쓰는 한편 그로써 밀려나는 노동력을 제3의 산업, 서비스나 유통에 더 활용할 노력이 필요하다.

택시기사, 대형마트 종업원, 제조업의 노동자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의 종사자로 대거 이동한 것처럼 점차 흐름의 변화에 맞추거나 앞서가는 노력이 지혜이다.

다만 AI시대에 생각해야 하는 점은 미국이나 중국의 산업계가 굳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풀어주는 sand box로 오픈함으로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계 규제나 생활산업도 규제가 심하다. 하도록 되어있는 것만 가능하다. 한 예로 도로의 유탄구역, 노래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세금관련이고, 다음은 청소년 보호인데 보호영역 외에도 규제가 지나친다.

AK산업의 놀라운 발전, 기대와 함께 젊은층의 일자리 구직에 불투요선이 될 수 있다.

큰 자본의 필요없이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 구체적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사설

국가유산 사진작가 이한철

국가유산 사진작가이자 문화유산 기록자 이한철 씨가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유산을 집대성한 사진집 명승 그리고 천연기념물 을 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점으로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 유산 중 '자연유산'에 속하는 전북 지역 내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집중 조명한 작품이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유산 패러다임 변화인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가는 재화 중심의 '문화재'에서 유산(heritage)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된 배경을 책 머리말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책에는 진안마이산, 부안제석강·적벽강 등 명승 12곳과 고창중산리 이팝나무, 무주일원반딧불이 서식지 등 천연기념물 35개소가 지역별로 담겼다.

수년간 사계절을 몇 번씩 거치면서 담아낸 사진이다.

작가는 각 유산의 지정 이유는 물론 생태적 특징, 주변 경관뿐 아니라 지질학적·문화·설화적 배경까지 적극적으로 조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가이드북, 지질공원 해설서, 생태 교육 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작가는 책 출간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사진전도 진행했다. 책에 수록된 주요 장면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계절을 반영한 풍경과 계절별 생태 변화 사진을 통해 자연유산의 아름다운 기록물을 보여준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전북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역 유산의 가치와 가치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 바란다.

남원 이백면 농촌 일손 돕기

전북 남원시 이백면에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한창이다. 남원시 이백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은 이백면 서곡리에 있는 과수 농가의 배, 그리고 복숭아 봉지싸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작황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봉지싸기 작업은 항상 특정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황도연 이백면장과 재정과 직원들이 나섰다. 지난 6월 11일 이백면의 한 농장에서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해당 농가는 “농번기로 많은 인력이 필요해 중요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많았으나 직원들의 일손 돕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과 말을 전했다.

황도연 이백면장과 이재철 재정과장은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농촌 일손 돕기 추진 기간 중 각 마을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손 돕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농가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력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원 처리에 있어 가까운 지역 농촌시장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방송을 제공한다.

실질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 노후화한 관개 시설 개선 및 농가들의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가능한 경우를 실제로 겪어 농업 능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도 했다. 실제로 농가의 경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농촌 방문 등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 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경찰 남친 살해’ 용의 리드, 3년 5개월 만에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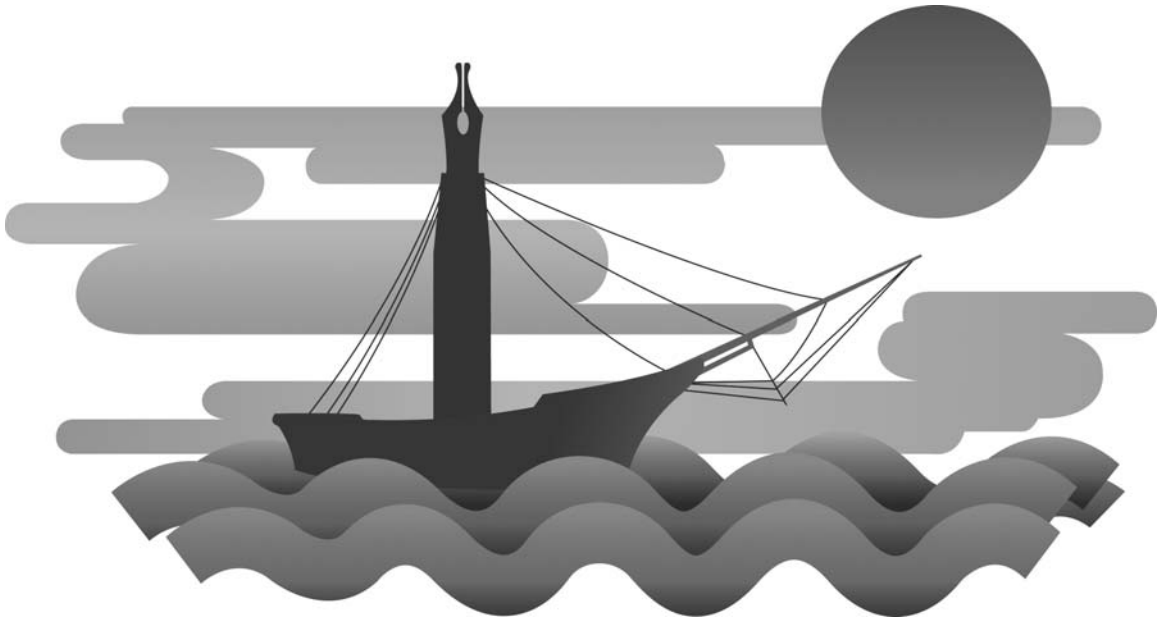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경찰관 남친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캐린 리드가 18일(현지 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데드웰의 노력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리드는 2022년 1월 29일 남자 친구였던 보스턴 경찰관 존 오키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3년 5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란 공습으로 파손된 텔아비브 꽃집



1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꽃 가게에서 한 남성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여파로 파손된 유리창을 치우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